

교회 온라인 교육 혁신 방안 탐색

-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김보경 전주대 교수

I. 서론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갑작스럽게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짧은 시간에 교수자 또는 학습자의 온라인 교수-학습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그간 면대면(face-to-face) 교육과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교회에서는 갑작스럽게 비대면(non face-to-face) 서비스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자 캠퍼스기반의 영성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특히 ‘지금’, ‘여기에’의 영성을 강조해온 교회에서는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영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미네르바 스쿨은 대학의 스타트업, 대학의 대안학교, 혁신적인 대학,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불리며, 대학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였다. 미네르바 스쿨의 창립자 Ben Nelson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다니면서 한 수업에서 “대학이 사회에 책임(영향력)을 초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 라는 과제를 받았으며, 이때 전통적 대학교육과정 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김준환, 2019 10. 26). 그는 2012년 투자 받은 돈으로 미네르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오로지 교수가 학생을 잘 가르치는 데에만 써야 하며, 배움과 직결되지 않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건물을 유지하거나 스포츠 팀을 운영하거나 교수의 연구실을 지원하거나 하지 않으며 오로지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액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미네르바 스쿨을 설립하였다. 미네르바 스쿨은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연간 학비가 아이비리그의 1/3 수준이다(백재현, 2019. 10. 16). 교수의 연구실, 강의실, 편의시설이 없어 건물을 짓거나, 유지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미네르바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100% 온라인 토론식 수업이다. 수업이 온라인에서 이루어 지므로 물리적인 캠퍼스가 없다. 모든 수업은 사전학습과 실시간 토론인 플립드 러닝으로 운영되며(이혜정 외, 2019), 학생들은 4년간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임대한 기숙사에 지내며

도시의 기관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캠퍼스가 없는 대신 기숙하고 있는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며 학습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도시의 도서관, 헬스장 등을 이용하며, 컨퍼런스나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도시의 가용자원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한다(이경호, 2020). 이러한 미네르바 스쿨이 혁신성은 물리적인 교회 공간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예배와 각종 교육사역이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교회 온라인 교육의 방향성을 찾는 데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혁신

1. 교육목표

미네르바 스쿨의 비전은 세상을 위한 비판적 지혜 양성(Nurturing critical wisdom for the sake of the world)과 실천적 지식 습득(Practical Knowledge)이다. 지혜와 군사전략의 여신인 미네르바를 학교 이름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세상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목표는 <표 1>과 같이 3층위를 이루고 있다. 가장 상위에는 이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인 현명한 의사결정, 의미있는 혁신, 넓은 사고능력, 글로벌 시민의식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정의하였다. 핵심역량은 개인역량으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대인역량으로 효과적 의사소통과 효과적 상호작용을 설정하였다.

<Table 1> 미네르바 스쿨의 3층위 교육목표

3층위	4대 핵심목표	·현명한 의사결정 ·의미있는 혁신 ·넓은 사고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2층위	4대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효과적 의사소통	효과적 상호작용
		개인역량		대인역량	
1층위	120개 세부 학습목표 (습관과 개념, HCs)	※ 마음의 습관(Habits of mind) ¹⁾ 예) Looking for counter example, Thinking of analogies, Understanding audience interest and goals ※ 기초 개념(Foundational Concepts) ²⁾ 예) Alternative representation of problem, Heuristics for creating new strategies, Visual design principle			

이러한 핵심역량은 한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네르바 스쿨이 온라인 대학이지만 학생 역량을 함양하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래 층위의 습관과 개념(Habits of mind & Foundational concepts, HCs)으로 불리는 120개의 학습목표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HCs들은 학생들이 4년간 다양한 교과목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들로 4대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교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HCs들은 그대로 평가되어 학생의 핵심역량이 얼마나 성장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된다. 즉 미네르바 스쿨이 다른 교육기관과 가지는 차별성이 바로 이 HCs이며 교육목표, 핵심역량을 각 교과목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육과정

미네르바 스쿨의 역량기반교육과정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실제로 모든 수업을 통해 정의된 핵심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의 학년별 교육과정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먼저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이 학년별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내용과 운영에 반영되도록 각 역량별로 HCs가 해시태그로 정의되어 있다.

1학년 교육과정은 4대 핵심역량을 충분히 강화하여 학습의 초석을 다시는 코너스톤 과정이다. 학생들이 무전공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1학년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모든 클래스를 20명 미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과목은 여러 개의 분반으로 운영되고, 각 분반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 협업도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공동개발하고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2학년은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코어 과정으로 운영된다. 전공은 예술 및 인문학, 컴퓨터 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학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모든 학문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게다가 융복합 교육과정을 강조하므로 많은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한다. 한국 대학의 전공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3학년부터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심화하여 배우면서 캡스톤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시작한다. 프로젝트 주제는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을 융합하고 다양한

1) 연습을 통해 자동화되는 인지 기술

2)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지식

맥락에 걸쳐있는 주제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학생 Kayla Cohen은 예술 및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복수전공 하였는데, 그녀의 캡스톤 테마는 ‘과학을 소설로 쓰기: 과학 미스터리에서 스타인벡까지’이다. 이때 Michael Bogucki 교수가 어드바이저로 그녀의 캡스톤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게 된다. 4학년은 자신의 학습을 종합하여 캡스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교육과정이다. Kayla Cohen은 4학년 1학기 런던에서 기숙하면서 캡스톤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쇼케이스를 갖게 된다. 또한 그녀는 미네르바 스쿨 졸업 후 Wisconsin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는데, 토양과 농업에 관련된 과학지식을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출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³⁾

<Table 2> 미네르바 스쿨 학년별 교육과정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효과적 의사소통	효과적 협업
핵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 평가하기 -추론 분석하기 -판단에 가중치 두기 -문제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견 촉진하기 -문제 해결하기 -제품, 과정, 서비스 창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효과적으로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하기, 중재하기, 설득하기 -타인과 효과적으로 일하기 -윤리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HCS	#비평 #연역 #귀납 #매몰비용 #의사결정나무 #갭분석 #게임이론	#사례연구 #최적화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편향 #디자인씽킹	#프레젠테이션 #합축 #표정 #몸동작	#BATNA #당근과채찍 #메타지식 #윤리적갈등 #공정성
학년별 교육 과정 및 교과목, 기숙 도시	4학년 종합 과정 (Tutorial/Capstone course)	자신의 학습을 종합하고 완성	캡스톤 프로젝트 완성 및 평가	샌프란시스코
	3학년 집중 과정 (Concentration course)	전공 심화과정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캡스톤 프로젝트 시작	서울, 하이데라바드
	2학년 핵심 과정 (Core course)	지도교수 도움으로 관심 분야 설정, 학년 중반 전공 선택, 전공 기초과정	5개 전공: 예술 및 인문학, 컴퓨터 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1학년 코너스톤 과정 (Cornerstone course)	4대 핵심역량 강화, 학습 초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 분석 ·실증적 분석 ·다중양식 커뮤니케이션 ·복잡계 	런던, 타이베이

학생역량 평가는 성장기반평가(Growth-based evaluation)로 진행한다. 1학년 성적을 기준

3) <https://www.minerva.kgi.edu/academics/capstone-showcase-kayla-cohen/>

점수로 하며 이후 HCs 달성을 확인하고 점수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역량 성장을 확인한다. 각 수업의 준비-과정-결과를 매주 평가한다. 평가는 ALF에 누적된 학생 데이터를 활용한다. 과목 평가에 GPA나 석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실제 사회에서의 문제해결과 흡사한 환경에서 평가한다. 온라인 평가를 할 때 오픈북, 인터넷 활용, 협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의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역량이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도록 각 교과목에서 지정된 역량들의 총합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표면상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평가는 교과목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순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육방법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방법은 플립러닝,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사전학습, 실시간 화상 토론, 사후 피드백을 철저하게 한다. 특히 TED, 뉴스기사, 논문, MOOC 등의 자료로 철저한 사전학습을 하여 온라인 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온라인 토론은 교수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같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그룹핑하여 토론하며 해결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학생이 온라인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도록 자체 개발한 플랫폼인 포럼(Active Learning Forum, ALF)을 사용한다. 포럼은 Bloom의 숙달학습 이론과 2sigma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되었는데, 교수가 학생 개인의 학습 참여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개입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별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모든 수업은 녹화되어 수업을 마친 후에 플랫폼에 탑재되고, 수일 내에 교수의 개인별 피드백이 전달된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가 개발한 연습용 문제해결을 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기숙하는 도시의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매학기 새로운 도시를 경험하는 것은 현지인으로 구성된 학생경험팀(Student Experience Team)이 지원한다. 이들은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이 해당 도시에서의 학생 체험을 지원하고 코디네이트 하는 역할을 하며, 미네르바 스쿨 시티 익스피리언스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채용된다. 매주 금요일은 ‘수업 없는 날’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해당 도시의 스타트업 기업,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과 프로젝트 진행, 문화적 교류 지원, 지역의 명사를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

2018년 서울에 기숙하게 된 학생들은 카카오 본사가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는 “이용자들이 각자 목표를 세워 100일 동안 실천할 수 있게 돕는 App을 만들 계획이다. 어떻게 하면 이 App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해 와라.” 이다. SK엔카닷컴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차를 고를 수 있게 돕는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 캐릭터를 고르고 한국 유행가 가사를 맞히는 설문에 답하면, 개개인의 취향을 짐작해서 그에 맞춰 중고차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라.” 라는 문제를 주었다. 학생들은 카카오와 SK엔카닷컴의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숙사 근처 단골 초콜릿 가게, 기숙사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새 제품 론칭 홍보 전략 개발 및 원가를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프로젝트 주제가 된다(양지호, 2019. 1. 18).

이처럼 미네르바 스쿨은 교실이 없어도 플립드 러닝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도시를 경험하고 동일한 지식이 국가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며, 실천적 지식, 비판적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III. 미네르바 스쿨이 교회 온라인 교육 혁신에 주는 시사점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교육현장의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시스템과 콘텐츠를 모두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를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0, 9). 디지털과 온라인의 최대 장점은 교육과정 운영에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든다는 점과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을 물리적 조직의 경계를 넘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션스쿨인 J대학에서 정례적으로 드리는 교직원 예배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그 대학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성도에게 실시간 예배 링크를 보내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 서로 관련 없는 조직에 속한 이들이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 초연결사회에 접어들면서 공유가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상에서 교회 교육의 디지털화도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며 유연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미네르바 대학의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 사례가 교회교육과 온라인 교육사역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온라인 예배 및 사역 플랫폼 구축, 성도의 일상을 담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 목회자 또는 사역자들의 온라인 교수역량 강화로 제시하였다.

1. 교회 구성원들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교회 온라인 교육 혁신을 위해 가장 선제되어야 할 것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다. 그동안 교회에서도 온라인 교육과 사역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오프라인 사역의 보완재로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 사역을 오프라인 사역의 일시적 대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팬데믹의 장기화로 최근에는 온라인 사역을 뉴노멀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모임을 중요시하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온라인 사역은 여전히 오프라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식전달식의 일방적인 교육만 효과적이며 상호작용이나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미네르바 스쿨의 사례를 볼 때 온라인 교육 또는 탈캠퍼스 교육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이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성도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결과가 일관되어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선택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뿐이다. 실제로 교회는 사회에서 규정한 핵심역량을 키우기에 매우 적합한 교육공동체이다. 미네르바 스쿨의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효과적 의사소통, 효과적 협업 역량과 교육부의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심미적 감성은 교회의 사역과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훈련될 수 있다. 라영환(2020: 56)은 자기주도성, 의사소통, 공동체, 심미성, 창의성은 교회교육에서 특별히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의 비전과 목표, 또는 성도들의 영성역량 목표를 규정하고 그것을 위해 교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러한 역량을 규정하였지만, 기존의 교회교육을 보는 시각, 전달체제, 운영방식 등을 재구조화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회의 비전이 실제 예배와 교육까지 연결되도록 정교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네르바 스쿨은 교육목표-핵심역량-수업목표(HCs)-수업운영-수업평가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설계되어 있다. 즉 교육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과정을 먼저 구상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교육에서도 구성원들이 성도들의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세화 하고 구성원들과 충분히 공유한 후에 사역을 운영하는 것이 교회비전에

일관된 교육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 교육의 비전이나 목표의 수립부터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내부 연수 또는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개별 사역자들이 자신의 관심을 전달하는 수준의 교육만 이루어지게 된다.

2. 온라인 예배 및 사역 플랫폼 구축

플랫폼이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목적지로 가는 기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 평평한 장소를 의미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플랫폼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오픈함으로써 해당 플랫폼이 가진 기능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기도 하고, 타 서비스 개발자들이 API와 연동한 App을 개발하여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쌓이게 된다.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플랫폼의 역할을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배와 사역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누적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네르바 스쿨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 ALF(이하 포럼)는 실시간 온라인 토론 수업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 교회는 이들이 온라인 교육을 대면교육의 보완재로 인식하지 않고 온라인과 테크놀로지의 장점과 잠재성을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포럼을 사용한 학생들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Minerva School YouTube 채널: Forum-A New Way to Learn).

“사람들이 포럼을 사용한 수업은 미래지향적이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실 수업과 똑같아요.”

“교실에서는 사람들이 내 뒤에 있는데, 포럼에서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수업내용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아요.”

“포럼에서의 학습의 비밀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교실에 학생들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상에 있다는 것을 잘 잊어버리게 되요.”

즉 포럼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은 교실수업과 동일한 실재감을 주고, 때로는 교실수업에서 불가능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포럼에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

하게 되고, 교수자는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받아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실에서는 학생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학습참여의 양과 질이 어떤지를 교수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 인간은 비합리적 존재로 자신이 설정한 프레임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편향의 오류를 자주 범한다.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들도 이러한 편향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김보경, 2018; 2019). 학생은 합리적 판단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할 뿐이며(Stodd, 2012), 교수는 교수행위를 하는 동안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데이터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수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포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미래사회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도구가 아닌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된다(Carr, 2010; McLuhan, 2003; 이은택, 설동준, 유명만, 임상훈, 2018).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참여의 양과 질은 정확하게 인식되기 어렵다. 가르치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이러한 편향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교회에서도 예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 예배의 출석과 참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성도 개인의 경건생활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학습 능동성을 재해석한 교육환경 구축이 매체분야에서는 미디어 이용자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는 행위와 관련된 특성으로 수용자 능동성이라는 개념이 있다(Katz & Foulkes, 1962).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리모콘의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다(이수영, 은혜정, 2006). 그러므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에서의 능동성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예배는 일방적인 방송 형태의 수동적인 참여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온라인에서 능동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생에게 반응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즉 학생의 반응 비율, 반응 횟수, 반응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Christle & Schuster, 2003). 이는 온라인 예배에서도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기회를 제공해야 온라인 예배에 몰입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예배와 교육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은 교회가 가정, 학교, 사회를 연결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신앙교육의 플랫폼 역할(라영환, 2020)이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교회 교육의 결과가 교회 → 가정 → 학교/사회의 구조로 전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기능의 약화는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정, 학교, 사회의 가운데에서 필요한 신앙교육 콘텐츠 제공, 영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기술적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곳에서 사회와 가정, 학교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누적되고 서비스되어야 한다.

3. 성도의 일상을 담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

앞으로 교회 교육에서는 성도의 일상의 문제와 이를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이 아닌 곳,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듣게 된다. 자신이 생활하는 가정의 거실, 안방, 사무실, 또는 차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각자 서로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게 된다. 구분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와 의전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장애가 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공간과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간이 일치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공간은 교육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으며, 예배를 드린 공간에서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와의 사귀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교육의 단절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우지연, 2020). 그러므로 일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평신도들이 계시를 일상으로 해석하는 삶,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의 일상성에 대한 담론이 무형식 학습이나 사회적 실천, 경험학습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양은아, 2010, 이지혜, 위영은, 2013). 즉 학습이 교육제도권을 벗어나 일상의 경험과 실천적 행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호(2015)는 학습의 일상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인색하였다고 하면서, 학습의 일상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학습공간 만들기보다 학습 진전의 과정을 더 중시하기, 제도화된 학습과의 차이 속에서 연대 방안 모색하기, 학습의 일상성 실천 사례 발굴 및 확산하기,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성에 통합하기가 그것이다.

미네르바 스쿨은 학교와 교실이 아닌 일상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의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교육도 성도가 교회 밖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성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과정은 성도가 살아갈 사회와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네르바 스쿨이 탈교실, 탈캠퍼스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교실과 캠퍼스가 사회를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가용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하면서, 사회와 도시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글로벌 시민이 된다. 이러한 도시의 학생 경험을 설계하고 도와주는 전문 코디네이터인 학생경험팀이

교회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즉 목회자 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말씀과 계시를 성도들의 교회 밖 일상적 경험과 연결지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함을 말한다.

탈캠퍼스 전략은 대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교회에 큰 시사점을 주므로, 성도의 일상의 삶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회에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하지만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인색하였다. 즉, 교회 교육에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담아내는 설교와 교육이 부족하였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은 교회와 일상, 계시와 삶을 연결하는 시작점이 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 일터, 학교, 카페에서 드린다. 말씀을 성전이 아닌 곳에서 받는 것이다. 이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맥락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설교에서 성도의 일상이 배제되는 것은, 성전 안에서 말씀이 배제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기 어렵다는 것을 교회교육의 제한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사역과 공동체성을 일상으로 확장하여 세상과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4. 목회자 또는 사역자들의 온라인 교수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큰 특징은 콘텐츠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면서 공개된다는 점이다.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공유된다는 것은 콘텐츠의 내용과 설계의 질적인 측면이 자연스럽게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콘텐츠들의 인기 서열화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수요가 높은 콘텐츠와 설계가 우수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게 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외에도 희소하거나 특이한 내용의 콘텐츠가 주목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들의 공개강좌 콘텐츠인 K-MOOC의 경우 2019년 최다 수강강좌의 대부분이 통계나 빅데이터 관련 강좌이다. 또한 최대 이수율 강좌는 독특한 분야인 판소리나 언어관련 강좌였고, 그 외에 설계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강좌들이 인기를 끌었다(이지은, 2020).

기독교 콘텐츠 또한 YouTube와 같은 플랫폼에서 실시간 예배가 서비스되고 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제 성도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교육 콘텐츠보다 다른 교회와 조직의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 콘텐츠는 조회수를 통해 인기를 서열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설교와 기독교 강좌와 같은 강의 콘텐츠의 경우 유명인의 콘텐츠가 유통되며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 플립러닝과 오프라인 프로젝트 교육방법을 큰 축으로 운영한다.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플립러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수자들의 철저한 교수설계가 부족하고 학습자들의 사전학습 준비도가 낮아 교실에서 학습자 중심 활동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다. 그러나 미네르바 스쿨에서의 플립러닝은 공개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철저한 사전 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지식 습득을 한 후,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같은 의견인 학생을 그루핑하여 토론하며 해결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서 교수가 지식전달식 강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모든 수업은 녹화되고 교수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교수진을 채용할 때에도 숙련된 교수법이 준비되어 학생들의 역량 함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들을 채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회교육 사역자들도 설교나 강의를 넘어서 성도들이 삶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방식의 교수역량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홍정민(2017)은 에듀테크 시대 교수자의 역량에 대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필수이며, 짧게 나누어 가르치고 이를 교육의 목표에 따라 큐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의 설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비형식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성도들은 이미 공개된 수많은 기독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내만 잘 한다면 언제든지 접근하여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교회는 그 지역적 특성과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반영한 성도 참여중심 교수법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 또는 사역자들은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이에 대한 질문, 또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들, 삶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기도와 중보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교수법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 방법을 온라인에서도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야 한다. 성도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교수법을 준비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식전달식 교육을 고수한다면 다양하게 공개된 유명인의 설교에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스타트업 또는 혁신적인 온라인 대학으로 불리는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을 분석해보고, 교회 온라인 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교회 온라인 교육이 교회의 비전과 목표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혁신되기 위해서는 첫째,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정, 사회, 교회, 학교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성도의 일상을 담은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가 확대되어야 하며, 넷째, 목회자 또는 사역자들의 온라인 교수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 달리 산업분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포스트 휴먼과 같은 용어들로 인해 창조된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 나아가 기계적 인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많은 영역에서 비기독교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때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중세의 종교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새롭고 혁신적인 표준을 만들어서 새 시대를 열었다(라영환, 2020)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기독교와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있어서 도전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도가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은 그곳에서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회교육 관계자들은 그들의 성도들이 온라인에서의 많은 웹페이지들을 방문하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자취가 그리스도인다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오프라인 만큼 때로는 그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0. 9).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
- 김민호(2015). '학습의 일상성' 구현: 장애요인과 기본원칙. 평생학습사회, 11(1), 1-26.
- 김보경(2018). 직관적 사고의 교육적 의의와 교수설계에의 시사점. 교육공학연구, 34(3), 617-948.
- 김보경(2019). 학습자 비합리성을 고려한 교육 테크놀로지의 역할. 교육종합연구, 17(4), 61-83.
- 김준환(2019. 10. 26).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 설립자 “시험 성적 중요하지 않아... 학생의 잠재적 역량과 특성 파악에 주력” 한국대학신문
- 라영환(2020). 4차 산업혁명과 개혁주의생명신학: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과 말씀, 26(1), 43-68.
- 백재현(2019. 10. 16). 서울대 안가고 미네르바 스쿨 간다? 리더스경제신문.
- 신형섭(2020). 2066 가정사역 미니스트리가 한국 교회교육에 주는 교육목회적 방향성 연구. 선교와 신학, 50, 323-355.
- 양은아(2010). 인문학과 평생학습. 서울: 학지사.
- 양지호(2019. 1. 18). 카카오에 간 미네르바 2학년들.. 작심 100일 앱 밀그림 바꿨다. Retrieved October 20, 2020, from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8/2019011800374.html

- 우지연(2020). 교회 교육공간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환경구성. 기독교교육논총, 제62집, 313-334.
- 이경호(2020).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학교교육 혁신방안 탐색: 미국 ‘미네르바 스쿨’ 혁신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1), 179-199.
- 이수영, 은혜정(2006). 디지털 미디어 수용자의 능동성에 관한 연구: PPV(Pay Per View)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6, 348-373.
- 이은택, 설동준, 유영만, 임상훈(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수학습 양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미디어의 속성변화에 대한 통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2), 303-329.
- 이지은(2020). 에듀테크로 촉발되는 고등교육의 위기와 기회. Korea Business Review, 24(신년 특별호), 151-171.
- 이지혜, 위영은(2013). 비문해자 학습의 일상성: 그들은 어떻게 문자세계를 극복하는가. 평생교육학연구, 19(4), 51-78.
- 이혜정, 임상훈, 강수민(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 방안 탐색: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5(2), 59-84.
- 홍정민(2017). 에듀테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서울: 책밥.
- Carr, N. (2010). *The Shallows: How the internet is changing the way we think, read and remember*. New York, NY: Atlantic Books Ltd.
- Christle, C. A., & Schuster, J. W. (2003). The effect of using response cards on student particip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on-task behavior during whole-class, math instruction. *Journal of Behavioral Education*, 12(3), 147-165.
- McLuhan, M. (2003).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critical edition)*. edited by W. Terrence Cordon, Berkeley, CA: Ginko Press.
- Katz, E., & Foulkes, D. (1962). On the use of the mass media as "escape": Clarification of a concept. *Public opinion quarterly*, 26(3), 37-38.
- Stodd, J. (2012, Jan. 19). *The irrational learner: doing this things just because they feel right*. Retrieved October, 20, 2020, from <https://julianstodd.wordpress.com/2012/01/19/the-irrational-learner-doing-things-just-because-they-feel-right/>

Websites:

Minerva School YouTube 채널: Forum-A New Way to Learn).
<https://www.minerva.kgi.edu/academics/capstone-showcase-kayla-cohen/>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교회 온라인 교육 혁신 방안 탐색 -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보경
		논찬자 (소속)	김난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적절한 시기에 김보경 교수님의 논문이 발표되어 정말 반갑고 흐뭇한 마음으로 논찬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면대면(face-to-face) 예배와 교회교육을 당연시 해오던 교회들이 어떤 준비도 없이 갑자기 비대면으로 대체되면서 교회는 숙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교회들은 자체적 콘텐츠로 동영상 제작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와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주일예배 설교나 행사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미디어를 사용하였던 대부분의 교회들과 이것마저도 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교회들은 갑작스런 비대면 예배와 교육에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존재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 교수님은 학교건물이 없으며 100% 온라인 토론식으로 진행하면서도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미네르바 스쿨의 사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온라인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대안을 4가지로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매우 뜻있는 논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온라인에서는 상호작용이나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성도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교회교육을 보는 시각, 전달체계, 운영방식 등을 재구조화한다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온라인 교육을 대면교육의 보완재로 인식하지 말고 온라인과 테크놀로지의 장점과 잠재성을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회 → 가정 → 학교/사회의 구조로 전달되는 온라인 예배 및 사역 플랫폼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교육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공간이 삶의 자리이므로 일상의 삶과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온라인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위에 제시한 김 교수님의 제안들은 한국교회가 당연히 생각해 보고 시행해야 할 문제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논찬자가 좀 더 제안을 덧붙인다면 첫째, 어떤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할 때 목회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숙고하고 기도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비전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상호작용과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의 교육적 책임은 2차적이며 1차적 책임은 가정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가정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져서 건강하지 않기에 교회의 교육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때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후 가정, 사회, 교회, 학교의 생태계를 구축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일상을 담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할 때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만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한,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는 헌금을 교회의 본질적 존재이유를 위한 곳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을 유지하거나 교회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축소하여 오로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김 교수님의 논문에 사족을 단다면 원론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방법,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생태계 연계 구축 방법, 성도의 일상을 담은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 방법, 목회자의 온라인 교수역량이 강화 방법 등의 제시가 있었다면 정말 도움이 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님 논문은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